

###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 9. 선종의 사구계(4)

6조의 남종 돈오선은 중국 불교를 넘어 정치, 문화, 예술 전 분야를 뒤덮고 우리나라, 일본, 서구에 미쳐 전 세계화되고 있다. 찬란한 당대의 5종(임제종, 운문종, 위암종, 조동종, 법안종)과 송대에 이르러 다시 임제종이 양기, 황룡 2파로 나뉘어져 드디어 '중국 불교는 선에 있다'는 말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법계는 신라시대에 도의, 법일 등에 의해 전해져온 마조선이 보조 지눌에 이르러 크게 선종이 진작되고, 고려 말엽 양파와 신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을 아우른, 태고 보우와 나옹 해근에 뿌리를 둔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주종을 이룬다.

물론 6조 이후에 정립된 계승이지만 사구계가 바로 육조혜능의 말씀인 <육조단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동시 선의 황금시기에 다각도로 전개된 57종의 종지가 되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근본이 된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不立文字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니 教外別傳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니 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부처를 이룬다 見性成佛  
모든 법은 모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

### 자성은 말·글을 초월한 절대절명의 가치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스스로 道 깨쳐” 혜능사상 전세계 정치·문화계에 큰 영향

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에 진여 본성을 단박 나타내지 못할까? <보살계경>에 '나의 본래 근원이 자성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識心見性) 스스로 부처의 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곧 확연히 깨쳐서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 것입니다.(<돈황본단경>17 권설)

위 말씀은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부처이고 본래 마음(진심)을 도로 찾는 것이

라 명백히 선언한다. 혜능에게는 자성이 아말로 절대절명의 것이다. 자성은 시간과 공간의 저쪽에 있으며, 우리의 말과 글이 표현할 수 있는 일체의 속성을 초월한다. 우리의 언어는 단지 현상세계와 사물과 사물이 끝없이 대립하고 융화하는 사이에 가유해 있을 따름이다. 가유해 있는 흔적을 우리는 자성 위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뿐이다.

우리가 <단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무위적인 초월 사상이다. 자성을 돈오함으로 오는 자유로움 이것은 노

장적(老莊)이나, 마지막 고요에 빠지지 말고 고요에서 오는 환화에 안주하지 말고 혜능은 저자거리로 돌아오라고 소리친다. 이것이야말로 실사구시의 공맹사상인 인간 중심적 사유의 맛이 한껏 드러나는 대문이다. 일체의 불경과 선어록은 우리를 위하여 설하여졌고 우리의 자성, 곧 불성 위에 건립되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혜능은 일체만물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 무집착이 되었을 때, 이 무집착에 집

착하는 위험을 위하여 말한다. 흔히 공에 빠지는 것을 8마계에 빠진다고 말한다. 고요와 적적에 쌓여 혼자 환희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문체에 대해, 그 이후 혜능의 후손들은 “백척의 낭떠러지에서 한 발 내디디라, 심판 세계가 모두 부처님의 진자 몸임을 알게 되리라”는 멋진 선언으로 경계를 하지만, 그는 더욱 친절하고 인간적인 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대들의 마음이 이미 선과 악의에서 벗어났다면, 깎은 듯한 공허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과 뒤가 끊기는 고요를 지키며 즐기는 경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오르지 학문을 넓히고 많은 견문을 쌓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본심을 깨달아, 모든 깨달은 이의 근본 이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사귀에 있어서 화합이 자연 이루어지고 나와 남이라는 생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보리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육조단경> 제5 ‘전향참회’

혜능의 가르침은 그와 그의 사상을 잇는 선사들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실증되어졌으며, 이국도 실생활, 문화, 문학, 사상, 정치 전반이 막대한 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사상을 강타하고 있다.



###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선촌 대표

#### 송이젓불구이

사찰음식을 연구한지 어언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사찰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내 7대 종단 대표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대표회장 최근덕 성균관장)에서 5월 5~8일 평양을 방문, 광복사 등 보현사 등을 참배했습니다. 출가 후 스님들에게 북한의 사찰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운 터라, 언젠가 꼭 북한 사찰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그간 스님들께 보고 배운 북쪽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가보지도 못한 사찰의 음식을 공개하는 것이 꺼려졌는데 이번 북한 방문으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보현사에 도착했을 때 북쪽 스님네 분이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법당에 들어 서울에서 가져간 반과를 부쳐님께 올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보현사 주지스님 법명은 청운이고, 스텔일급에 출가해 지금은 세남 일흔 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보현사에서만 주석하셨다는 스님에게 소식적에 노스님께 들었던 북쪽 사찰음식을 말했더니, “그때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님들 생활 방식이 옛날과 달라 그렇게 해먹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 북한 사찰 음식 국수종류 많아 양념 덜 사용해 간 심심한 편

북한 사찰의 음식 재료는 남한 사찰과 많이 다릅니다. 북한 사찰에서는 국수, 감자, 수수, 콩, 고염 등을 섞어서 지었습니다. 음식을 발효해서 먹는 방법도 남쪽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음식에 양념을 덜 사용하고 간도 심심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노스님께 듣고 배운 북한 사찰음식을 소개할까 합니다.



#### 송이젓불구이

재료 : 송이버섯, 무, 호박, 마, 호박잎, 소금, 참기름

- 만드는 법
1. 무의 윗부분을 자르고 속을 파낸다.
  2. 마는 강판에 갈고 송이, 호박은 깍둑썰기로 잘라 다음 소금으로 간을 한다.
  3. 재료를 무 속에 가득 채운 다음 무 저면 두껍을 덮어서 대꼬챙이로 꿰어서 고정시킨다.
  4. 무를 호박잎으로 3겹 정도 싸 다음 갓볼에 파묻고 하룻밤을 재운다.
  5. 아침에 꺼내서 호박잎을 걷어내고 길게 반으로 썬 후 다시 반달썰기로 썰고 참기름을 넣은 소금에 찍어 먹는다.

###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같은 당나귀를 타고  
이은봉 | 실천문학사 | 6000원



#### 인간의 다섯가지 욕망, 그 허무함에 대하여

이은봉은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1983년 <삶의 문화>에 평론을 발표하고, 1984년 창작과비평사에서 발간한 공동시집에 '좋은 세상' 등 몇 편의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은봉은 시집 후기에 "골짜기와 봉우리 사이를 허겁지겁 쫓겨 다니며 살고 있다. 거머들이 하늘에서 푹푹 떨어지는 어지러운 정글 속, 길을 알고 앞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 살아가기 힘든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은유하고 있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정글' 속에 내던져졌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그는 '조용한 마음으로 건너가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 '조용한 마음'에 당도하려면 '욕망의 과잉'을 잠재워야 하리라. 그래서 그는 욕망에게 선을 하라고 다그친다.

저고리 벗어라 브래지어 끈 풀어라  
영두알처럼 상큼한 내 입술 깨물어,  
베일처럼 풀것만 내 자궁으로 하여,  
아슬아슬한 소름끼치는 긴장,  
너도 맞보아야 하리

속치마 벗어라 팬티 끈 풀어라  
모도알처럼 촉촉한 내 젖꼭지로 하여,  
이글이 속처럼 겁북은 내 자궁으로 하여,  
신음하는, 몸부림치는 기쁨, 너도 맞보아야 하리

욕망이여 더러는 너도 지저우리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싶으리  
포그라드는 사라주기 굶어보고 싶을 때, 있으리  
꽃물 흘리며 살비처럼  
떨어져 내리고 싶을 때, 있으리

끝내 고개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박달나무 지팡이여 꼬부라진 지팡이  
끝내 깨달려 매롱거리는 말간 눈물이며  
너도 이번 문드러져가고 있구나  
조용히 달아가고 있구나

욕망이여 너도 그만 禪宗 하거라

눈감고 한 소식 좀 허기라 더러는 너도  
부처님 가운데로 막고 싶을 때, 있으리  
그렇구나 내 가슴 속, 치우는 사랑 좀 보아라  
맘 속 깊이, 우뚝우뚝 뿌리내리고 있구나.

- '욕망이여 너도 그만 禪宗 하거라' 전문

인용한 위 시는 1, 2연에서 외적 욕망의 기표들인 브래지어, 입술, 젖꼭지, 속치마, 팬티, 젖꼭지, 자궁 등의 명사와 벗어라, 풀어라, 상큼한, 풀것만, 벗어라, 촉촉한, 신음하는, 몸부림치는 등 동사나 형용사 등 용어를 통해 육체적 욕망의 요지경을 드러낸다. 그러나 3, 4연에서는 육체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노쇠한 육체의 심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연에서 화자는 '욕망'에게 "너도 그만 禪宗 하거라"고 다그친다. 욕망은 애착에 의하여 생기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유지된다. 사실 욕망 없는 삶은 죽은 삶이

다. 다섯 가지의 욕망인 성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재물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색, 성, 향, 미, 촉의 오경(五境)에 집착하여 일어나는 욕망이다. 이 다섯 가지 욕망에게 화자가 禪宗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시와 같이 화자가 직접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세상을 바라보기도 한다.

막대한 철근 콘크리트 벽 뚫어 만든 구멍,  
대기라 처박고 산 지 십 수년,  
마침내 구멍 빠져나와, 지평선 시원한 산전덕,  
보리수나무 아래, 가부좌 틀고 앉아 취, 하니  
세상 바라보다

바라보며 눈 감는다는 건 잠으로 어지러워라  
안락받슬 뒤집어쓴 채,  
담 내장 속같이 지저분한 또 하나의 구멍,  
헤매고 있을 뿐!  
아수라장 한 가운데,  
히죽히죽 떠 흐르고 있을 뿐!  
대기라 꼭 처박은 채.

- '구멍' 전문

# 길

수용자 효(孝) 문학작품  
누군가와 함께라면

판/매/합/니/다  
수용자들에게  
효 사상을 고취하고  
가족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공모했던  
수용자 효 문학작품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날권 구매시 : 12,000원  
두권 구매시 : 20,000원 + 사은품  
(청주불교방송 혜철스님 법문테이프) 증정

문의 및 구입안내 : 043)732-5560 대성사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기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포리백요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교재주문 : 수정기공코리아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할, 선착순 8명)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코리아.COM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